양 · 계 · 메 · 모

월간 양계

3월호

◎ 금년 겨울은 포근한 날들이 많아 봄이 일찍 찾아온 느낌이다. 그렇다 보니 농작물들의 생육이 빨라져 질병피해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낮기온이 높게 올라가다 보니 일교차가 더욱 커지면서 환절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가 다가왔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아직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고 계사관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육용 종계사료가 크게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아리 부족사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는 종계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데 기인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지난해 혹서에 의한 스트레스,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가금티푸스, 뉴모바이러스 등 다양한 질병피해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년 원종계 수입이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면서 불황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산란계 자조금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부화장들이 자조금 거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의만 이끌어 낸다면 의외로 쉽게 산란계 자조금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계자조금사업도 농가들의 조기시행에 대한 열의가 높은 가운데 대의원회를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사업재개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LPAI) 백신이 농림부로부터 사용허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5개 백신회사들이 시판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미 농가에 보급되어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아직 잠잠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철새가 돌아가는 4월 이후에나 판매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허용초기부터 백신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감을 받을 수 있다. 저병원성 백신의 사용은 고병원성과 연계하여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니다. 효과적인 양계질병 예방을 위해 협회 등 양계인을 관리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Spring is.....